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Social Support of Art Psychotherapis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oHyeon Kim

Department of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예술심리치료사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 초월의식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는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치료사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of art psychotherapists. The subjects were 114 art psychotherapists in the city of U.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regarding the effects of work spirituality of art psychotherapis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ub-factors of workplace spirituality (vocational consciousness, inner consciousness, and empathy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ce consciousness, which are sub-factors of workplace spirituality, do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regard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art psychotherapists on interpersonal relations,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such as evaluative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means that higher vocational consciousness, inner consciousness, empathy consciousness, evaluative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actors of an artistic psychotherapist are conducive to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a plan to promot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art psychotherapists.

Keywords : Art psychotherapist, Workplace spiritualit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ocational consciousnes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oHyeon Kim(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kshkain@naver.com

Received December 22, 2020

Revised January 22, 2021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과학과 산업이 성장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가정,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안녕감과 행복감을 추구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 심리치료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예술 심리치료사란 국외에서 살펴보면 고대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중요한 치료 도구로서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는 어떤 기법이나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접근하는 효과보다 치료사 개인의 상담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한 치료사를 말한다[1].

또한 국내에서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를 “창의적 매체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태도, 행동에 치유적인 영향과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한다[2].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직장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터영성은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대두된다. 일터영성이란 일하면서 즐거움과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일터에서 영성이 훨씬 관찰되기 쉽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일터에서 개인들은 공동체와 함께 그들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들 스스로 가치 있고, 지지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이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최근 조직관리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3-4].

또한 일터영성을 크게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면, 첫째,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이다. 내면 의식은 각 개인이 ‘자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느낌이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자신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이다. 소명은 ‘개인이 경험하는 일을 단순히 직무 또는 경력의 개념이 아닌, 인생의 목적과 결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5]. 위와 같이 일은 일반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이며, 일이 우리의 개인성을 넘어서 간주될 때, 일을 소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일을 통하여 초월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6].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으로, 동료 및 상하간의 관계에서 상대를 헤아리고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개인의 공감능력은 ‘상호적인 신뢰와 협조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조직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이다. ‘일과 환경에 몰입되어 자신을 초월한 경험을 하는 것이며, 자신이 더 큰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5-10].

이처럼 인간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등의 일상에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행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려 한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을 통해 대인관계는 예술심리치료사로서 내적 생활과 영적 생활은 직업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통해 참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완성을 이루게 되며, 이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11].

대인관계와 함께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는 또 다른 변인으로 대두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랑받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처럼 사회적지지만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동료, 전문가로부터 지원받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인 것이다.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람과의 여러 관계들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원조들로 사회적지지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작업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쉬운 정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12-14].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혹은 행동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효과를 주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도움으로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도움을 받는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다[15-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심리치료사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03일부터 2020년 10월 02일까지 U시의 예술심리치료사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14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일터영성 23문항, 사회적지지 25문항, 대인관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아[17]가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소명의식 5문항, 내면의식 5문항, 공감의식 5문항, 공동체의식 4문항, 초월의식 4항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순덕[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최순덕[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일터영성의 전체 신뢰도는 .928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지지의 전체 신뢰도는 .916으로 높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의 신뢰도 또한 .906의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Workplace spirituality	23	.928
Social support	25	.916
Human relationship	18	.906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은 남자 30명(26.3%), 여자 84명(73.7%)으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34명(29.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33명(28.9%), 50대 27명(23.7%), 20대 16명(14.0%), 60대 이상 4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유 51명(44.7%), 무 63명(55.3%)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79명(69.3%)으로 미혼 35명(30.7%)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41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28명(24.6%), 3년 이상-5년 미만이 21명(18.4%),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이 각각 12명(10.5%) 순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14)	
		Frequency	Ratio(%)
Sex	Male	30	26.3
	Female	84	73.7
Age	20s	16	14.0
	30s	33	28.9
	40s	34	29.8
	50s	27	23.7
	Over 60	4	3.6
Religion	Presence	51	44.7
	Absence	63	55.3
Marital status	Married	79	69.3
	Single	35	30.7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2	10.5
	1-3 years	12	10.5
	3-5 years	21	18.4
	5-10 years	28	24.6
	Over 10 years	41	36.0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3.76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소명의식(M=3.82)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초월의식(M=3.77), 공감의식(M=3.76), 공동체의식(M=3.75), 내면의식(M=3.6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workplace spirituality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A sense of calling	114	2.00	5.00	3.82	.56
Inner consciousness	114	2.20	5.00	3.68	.64
Empathy	114	2.00	5.00	3.76	.59
A sense of community	114	2.00	5.00	3.75	.62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114	2.00	5.00	3.77	.69
Total	114	2.16	5.00	3.76	.55

3.2.2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지지 요인의 전체는 M=3.8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87), 정보적지지(M=3.87)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지지(M=3.81), 평가적지지(M=3.72)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for social support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support	114	2.29	5.00	3.87	.53
Evaluative support	114	2.33	5.00	3.72	.62
Informational support	114	2.00	5.00	3.87	.60
Material support	114	1.67	5.00	3.81	.54
Total	114	2.22	5.00	3.82	.51

3.2.3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대인관계 요인의 전체는 M=3.77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M=3.82)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친근감(M=3.81), 민감성(M=3.81), 개방성(M=3.75), 이해성(M=3.75), 신뢰감(M=3.6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Communication	114	2.00	5.00	3.82	.58
Confidence	114	2.00	5.00	3.68	.70
Friendliness	114	2.67	5.00	3.81	.58
Sensitivity	114	2.00	5.00	3.81	.69
Openness	114	2.25	5.00	3.75	.60
Understanding	114	1.67	5.00	3.75	.68
Total	114	2.40	5.00	3.77	.53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과 사회적지지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99, p<.01$). 또한 일터영성과 대인관

계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21, p<.01$).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요인 또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64, p<.01$).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값은 유의수준 하로 각 변수들과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Workplace spirituality	Social support	Human relationship
Workplace spirituality	1		
Social support	.799**	1	
Human relationship	.721**	.764**	1

** $p<.01$

3.4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와의 관계

3.4.1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7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16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75.52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명의식($\beta=.680, p<.001$), 내면의식($\beta=.176, p<.05$), 공감의식($\beta=.191,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beta=-.086, p>.05$), 초월의식($\beta=-.044,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Human relationship	A constant	.550	.174		3.156**	
	A sense of calling	.640	.090	.680	7.122***	.226
	Inner consciousness	.146	.068	.176	2.147*	.306
	Empathy	.170	.068	.191	2.489*	.350
	A sense of community	-.073	.073	-.086	-1.010	.287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034	.063	-.044	-.541	.306

* $p<.05$, ** $p<.01$, *** $p<.001$

3.4.2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59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9.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92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9.79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평가적지지($\beta=.320, p<.01$), 물질적지지($\beta=.321, p<.01$)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beta=.038, p>.05$), 정보적지지($\beta=.183,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Human relationship	A constant	.773	.255		3.031**	
	Emotional support	.038	.127	.038	.296	.227
	Evaluative support	.274	.101	.320	2.706**	.267
	Informational support	.163	.096	.183	1.693	.318
	Material support	.316	.096	.321	3.288**	.392

**p<.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 요인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명의식($\beta=.680, p<.001$), 내면의식($\beta=.176, p<.05$), 공감의식($\beta=.191,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beta=-.086, p>.05$), 초월의식($\beta=-.044,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평가적지지($\beta=.320, p<.01$), 물질적지지($\beta=.321, p<.01$)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beta=.038, p>.05$), 정보적지지($\beta=.183,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치료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일터 영성,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예술 심리 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이 일터영성과 사회적지지, 원만한 대인관계에 개인, 내담자,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체감, 소속감, 충실감을 가지는 일터영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치료사 측면에서 일터영성 및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 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직장 내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개인 변인을 파악하고 일터영성 및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은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향상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Lambert, M. J. "The individual therapist's contribution to psychotherapy process and outcom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9, No.4, pp.469-485, 1989. DOI: [https://doi.org/10.1016/0272-7358\(89\)90004-4](https://doi.org/10.1016/0272-7358(89)90004-4)
- [2] Y. S. IIm, (A)study on the necessity of art therapy for artist's depression and suicide.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30-32, 2006.
- [3] Ashmos, D. P., Duchon, D., "Spirituality at work: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Vol.9, No.2, pp.134-145, 2000. DOI: <https://doi.org/10.1177/105649260092008>
- [4] Y. S. Shin, (A) study regarding the effect that a long-term caregivers' perception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xperience of affective events has on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one of workplace spirituality,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56-63, 2015.

- [5] S. C. No,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pp.6-23, 2013.
- [6] Thompson, C. M., *The congruent life: Following the inward path to fulfilling work and inspired leadership*. p.300,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30-71.
- [7] Vaill, P. B., *Spirited leading and learning: Process wisdom for a new age*. p.257,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8.
- [8] Singhal, M., Chatterjee, L., "A person-organization fit-based approach for spirituality at work: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uman*, Vol.12, No.2, pp.161-178, 2006.
DOI: <https://doi.org/10.1177/097168580601200205>
- [9] Yukl, G., Mahsud, R., "Why flexible and adaptive leadership is essential",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Vol. 62, No.2, pp.81-93, 2010.
DOI: <https://doi.org/10.1037/a0019835>
- [10] Torrance, R. M., *The spiritual quest: Transcendence in myth, religion, and science*, p.39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DOI: <https://doi.org/10.1525/9780520920163>
- [11] G. J. Choi, "The Spirituality at Work And Leadership", *The Journal of Industry and Management*, Vol.1, No.8, pp.23-51, 2000.
- [12]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DOI: <http://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13] House, R. J., "A path 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6, No.3, pp.321-339, 1971.
DOI: <http://doi.org/10.2307/2391905>
- [14] Caplan, G.,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p.267, Behavioral Publications, 1974.
- [15] Gottlieb, G.,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issues*, p.26,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formerly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Paul H. Mussen, editor, 1983.
- [16] K. S. Kang, M. Y. Jeong, M. Y. Kim, S. H. Jang, *Concept Analysis of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 No.3, pp.566-573, 2002.
- [17] J. A. Lee, *Effects of spiritual leadership behavior on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rough follower's workplace spirituality*,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pp.33-35, 2018.
- [18] S. D. Choi, *A study on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happiness of social welfare workers*, Ph.D dissertation, Chod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41-47, 2018.

김수현(SooHyeon Kim)

[정회원]



- 2021년 1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 중
- 2013년 1월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
- 2020년 ~ 현재 : 연세이너힐의원 도수치료 팀장

<관심분야>

자연 치유